

## 제주문화의 고고학적 성격 고찰

金 秉 模\*

### 先史時代의 제주도 주민들은 누구인가?

제주도 최초 주민들의 주된 경제활동은 무엇이었을까? 그들은 무슨 언어를 썼을까?

이런 의문은 끝이 없다. 이런 의문들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考古學, 民俗學, 神話學 같은데서 찾을 수는 없을까 하여 각 학계에서 오랫동안 노력을 경주해 왔다.

제주도에 외지인이 처음 도착하면 눈을 부릅뜬 하르방의 손님을 맞이한다. 그 하르방은 누구인가. 왜 그런 하르방은 서울이나 평양 같은데서는 찾아볼 수 없을까. 하르방보다 더욱더 오래된 것으로 보이는 제주도의 고인들은 언제부터 만들어졌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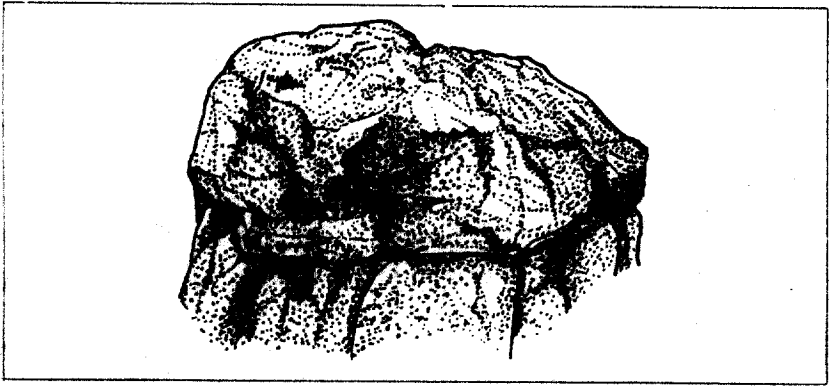
그리고 왜 제주도의 고인들은 육지의 고인들과 모양이 다른가. 이런 점들이 자세히 연구가 된다면 제주도 문화의 원형(原形)이 좀더 밝혀지게 될 것이다.

### 제주의 圓卓形 고인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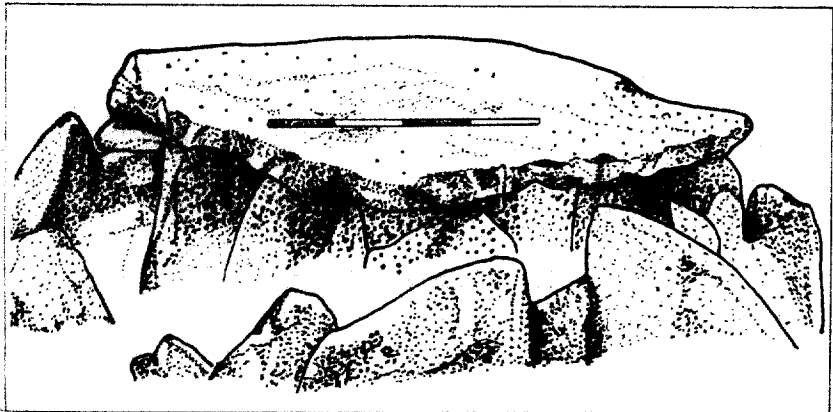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고인들은 청동기시대 후기인 기원전 500년경에 매우 유행한

\* 漢陽大 文化人類學科 教授

墓制의 한가지이다. 고인돌의 모양을 살펴보면 板石으로 네모난 상자모양을 만들고 뚜껑을 巨大한 돌로 덮어 놓은 것을 卓子形이라고 하고, 또 한가지 종류는 받침돌이 매우 얇아서 바둑판 모양(卓子形)을 했거나 아주 받침돌이 없이 地下의 埋葬部를 地上의 뚜껑돌로 눌러 누른 듯한 것도 있다. 한국 고인돌은 위의 두가지 종류를 大別되는게 通念이다. 그런데 제주도의 고인돌은 받침돌의 모양이 길다란 板石도 아니고 바둑판의 다리처럼 짧은 것도 아니다. 제주 고인돌은 전체 모양이 우리나라의 동근소반 모양으로 커다란 뚜



〈그림 1〉 제주도의 고인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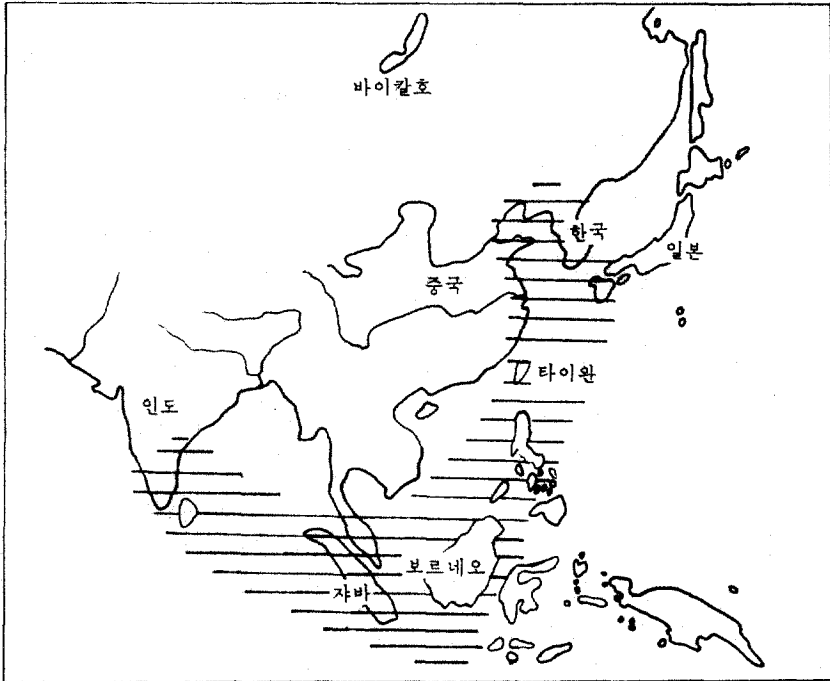
〈그림 2〉 India의 고인돌

경도를 10여개의 받침돌이 바차고 있고 받침돌의 배열이 원형이라는 점이 陸地의 고인돌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그림 1).

따라서 제주 고인돌의 형식을 편의상 圓卓形이라고 부르기로 하고 원탁형 고인돌의 형식이 내포하고 있을 성격을 살펴 보고자 한다.

우선 세계 고인돌의 분포를 살펴보면, 동양에서는 극동의 한국을 中心으로 하여 日本의 九州, 대만, 중국의 山東省, 南滿州를 잇는 한개의 문화권이 있고, 印度를 중심으로 한 말레이아, 인도네시아 등지가 한 문화권을 이룬다(지도).

그 밖에 유럽에서는 지중해를 圍繞한 한 고인돌 문화권이 있어서 북으로는 덴마크, 영국, 그 남쪽으로 西 프랑스와 스페인, 동으로 黑海地方에까지 퍼져 있다. 그런데 유럽의 고인돌들은 모든 卓子形 뿐이고, 인도권의 고인



<지도> 동남아시아 고인돌의 분포도(필자제작)

돌들은 卓子形과 圓卓形이 있으며 말레이아, 인도네시아에는 卓子形과 碁盤形이 있다(그림 2).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원탁형은 한국권에서는 제주도에만 있고 그 형식은 인도에서 發見된다는 점이 주목된다.

筆者는 오래전부터 韓國에 고인돌을 만드는 풍습이 인도로부터 동남아시아를 경유하여 해류로 한반도 남쪽에 상륙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는 고인돌이 중국 대륙의 漢文化의 核지역인 黃河유역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는 사실 즉, 비중국적이라는 點과, 아시아에서의 고인돌의 분포지역은 모두 쌀 농사지역이라는 점, 쌀이라는 말 뿐만 아니라 농경에 관계되는 어휘에서 한국어와 古代 인도語인 드라비다語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쌀농사 기술이 한반도에 나타나는 시기가 고인돌이 유행하던 시기와 똑같은 점 등에 근거한 것이다.

고인돌의 형식이 여러가지가 있는 것은 고인돌이 내포하고 있는 古代人의 死後世界에 대한 일종의 古代 信仰世界에서 後代에 발달된 宗教에서도 그렇듯이 여러 宗派에 따라 寺院이나 敎會 건물의 형식이 달라 질 수 있다는 사실과 유사한 현상이 아닐까 추측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고인돌의 3형식에 따라 고인돌 關係 信仰이 卓子形을 만드는 信仰派, 碁盤形을 만든 信仰派, 원탁형을 만든 신앙파로 분류될 수 있다.

그래서 청동기 시대의 제주도 주민들은 원탁형 고인돌만을 만든 信仰派가 主流를 이룬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종래까지는 고인돌의 형식을 갖고 時期의 先後를 연구해 본 것이 있으나 이제는 그것이 무의미해진 것 같다.

제주도는 지리적 위치로 보아 동남아에서 東北向해서 흐르는 시속 6노트 의 黑潮가 도달하는 방향이다. 따라서 싫던 좋던 黑潮文化圈에 接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인도와 동남아와의 자연스런 접촉이 오랜 세월동안 있어왔을 것임은 쉽게 추리된다.

또한, 언어학적인 측면에서도 한국어와 인도 지방의 드라비다語와는 많은

〈표〉 〈한국어와 고대 인도어, 인드라비다語와의 비교〉

의 미	한 국 어	인 도 어
rice 禾	pye	biya
seed 種	psi	bici
field 田	pat (田)	patti
seedling 苗	mo	mol
grain 粒	al	ari
grass 草	pul	pul

어휘가 공통적으로 나타나 있다는 연구가 있다. M. Clippinger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語속에는 드라비다語에서만 찾아 볼 수 있는 어휘가 400여개나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고대 한국文化와 고대 인도문화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접촉이 있었다는 것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고학적으로 인도와 한국에서는 청동기시대부터 같은 고인돌 문화를 共有했고 특히 제주도 주민들은 인도形인 圓卓形을 만든 古代信仰을 共有하고 있으므로 言語文化와 信仰文化가 두 지역간에 유사한 점이 드러난 셈이다.

그러면 언어학적으로 유사점이 있다면 그런 문화 접촉이 언제 일어났느냐 하는 의문이 당연히 제기된다.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의 열쇠는 한국의 고인들이 유행하던 시기는 쌀농사가 시작된 때와 같은 시기인 점으로 보아 청동기 시대 후기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절대연대로는 BC 600~500年代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 쌀농사의 기원에 관해서는 인도와는 무관하다는說이 있어 왔는데 그 주장의 뒷받침이 되었던 한국 古代米는 모두 短粒(Japonica) 이어 인도型인 長粒(Indica)이 아니라는 것이었는데 최근 西海岸 濟島에서 短粒(Indica)이 발견되어 한국 쌀농사의 기원이 서서히 밝혀지고 있음도 주목할만한 일이다.

### 발리섬의 돌하르방

제주도의 돌하르방은 그 생긴 모습이나 두 손을 배(腹部)에다 대고 있는

모습으로 매우 특이한 石像이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돌하르방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왔고 그것의 옛날 이름은 翁仲石이라고도 한다고 옛문헌을 찾아서 고증하기도 하였다. 또한 돌하르방의 최초의 존재는 고려시대에 처음 나타났다는 사실도 연구가 되어 있다. 그런데 정작 돌하르방은 제주도를 중심한 남해안 지대를 제외하고는 한국내의 다른 곳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 문화의 특별 소산물로만 생각했었다.

필자는 1981년 인도네시아의 Bali島에서 유적답사를 하다가 한 힌두교寺院內에서 수십개의 자그마한 돌하르방을 목격하게 되었다. Bali의 돌하르방들은 크기가 70cm를 넘지 못하는 작은 것들이었다. 그러나 특 볼그려진 두 눈과 두 손을 腹部에 대고 있는 모습은 제주도의 돌하르방이 풍기고 있는



濟州市의 돌하르방

<그림3>

Bali島 베사키 사원의 石像  
(筆者가 1982년에 촬영한 것을 기초로  
그린 그림. 손의 위치가 주목된다)

분위기와 똑 같은 것이었고 특히 腹部에 놓인 양손의 위치가 어떤 것은 왼손이 오른손보다 위에 있기도 하고 어떤 것은 오른손이 왼손보다 위에 있기도 한 점이 제주도의 경우와 같은 내용이었다(그림 3).

발리의 위치는 필리핀 群島의 남쪽으로 앞에서 말한 黑潮가 흐르는 남지나해에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해류를 통한 한반도와의 물리적 연결은 충분히 가능한 지역인 점도 주목되어야 한다.

또 한가지 하르방이 지니고 있는 民俗의 意味도 Bali와 제주도가 유사하다. 제주도에서는 하르방이 동네입구나 城門앞에 세워져 사람의 安寧을 지키는 守護機能이 있는데 Bali에서는 人間이나 가축에 질병을 패유케 하여 달라고 물을 떠서 손으로 하르방에다 뿌리는 民俗行爲가 있다. 즉 Bali의 들하르방은 질병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는 機能이 있다는 점에서도 우리와 유사하다.

### 黑潮文化圈의 必要性

위에서 간단히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특히 남해안에는 東南 아시아와 해류로 연결되는 文化的 要素가 여러가지 면에서 눈에 뜨인다. 黑潮란 東南亞의 南支那海에서 東北向으로 흐르는 해류의 이름이다. 지구상의 해류의 큰 줄기는 地球의 自轉현상 때문에 생기는 적도해류가 東에서 西로 흐르고 적도의 남북으로는 북반구에서는 西에서 海流가 東으로, 南半球에서는 海流가 東에서 西로 흐르게 되어 있다.

따라서 北半球에 위치한 한반도와 日本列島는 자연히 東南亞에서 東北上하는 海流를 만나게 되어 있어서 그 해류의 통과지점인 인도네시아 → 필리핀 → 대만 → 오끼나와 →  $\left\{ \begin{array}{l} \text{한반도} \\ \text{일본열도} \end{array} \right.$ 의 여러 지역과 오랜 세월에 걸쳐 食生, 문화전파 등의 관련성이 있어왔다. 이런 내용에 대하여 各國에서는 黑潮文化圈 研究에 오랫동안 관심과 노력을 경주해 왔다. 그러므로 제주도는 흑조문화권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연구해야만 풀릴것 같은 특수한 문화가 많이 있을 것이다. 오늘 소개한 圓卓形 고인돌과 하르방의 성격이 인도와 인도네시아

아 지역과 연결되는 성격으로 보이는 이유가 바로 北赤道 해류의 한 支流인 黑潮 때문일 것이라는 것을 想起하면서 앞으로 比較 民俗學的 연구와 比較 生態學研究가 考古學과 併行되기를 기대해 본다.